디젤 중형차시장 열기 '후끈'

메트로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제2935호 www.metroseoul.co.kr

윤석민·임창용 출발이 좋다

포근한 봄 붐비는 청계천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서울 청계천이 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기상청은 17일에도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 사이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병원에선 乙 신세가 도매상엔 '하늘'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⑩ 순한 '을'에서 악질 '갑'으로 변신하는 제약사

금융비용에 카드 수수료 떠넘기기 등 횡포

#1 지난해 12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 200여 명이 강남의 A 제약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황치엽 도매협회 회장도 A제약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도매업계에 금융 비용, 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제약업계의 횡포를 중단하고 유통 마진율을 인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제약사와 도매협회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이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약사와 도매상 간의 '갑을' 관계가 곪을 대로 곪은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겉으로는 유통 마진율 인상 갈등 같지만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납품하고 유통해야 하는 '을'의 위치인 도매업계가 고양이를 문 꼴이다.

#2 지난 2011년 글로벌 제약사 B는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국내 대형 제약사 C와 담합을 벌였다.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신약의 가격이 낮아지고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B가 당시 C와 맺은 전략적 제휴를 이용해 은근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유통에 드리운 또 다른 그림자

병원에게는 만년 '을'인 제약업계에도 해 뜰 날이 있다. 바로 제약사의 의약품을 유통 납품하는 도매상과의 관계에서다. 제약사와 도매상 간 형성된 갑을 관계 역시 만만치 않은 사이다.

제약업계의 특성상 의약품 생산은 제약사가, 유통은 도매협회를 대표로 하는 도매상이 맡는다. 즉 물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갑의 위치에 있고 물품을 공급받는 도매상이 을이 되는 수직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관계를 통해 제약사는 도매상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 일례로 2012년 2월에는 제약사들의 무리한 요구로 도매업계가 코너에 몰린 적이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겠다며 도매업계들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명과 약사 이름, 상세 주소 등의 의약품 판매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도매상은 제공할 수 없었지만 제약사의 압박과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도매상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대형 제약사보다는 주로 중소 제약사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매상조차 관련 사실의 노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생산 유통하는 제약사와 도매상은 공생해야 하는 관계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 도매상을 상대하는 제약사들이 많으며 도를 넘어선 횡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3면에 계속>

AI 여파 계란값 치솟는다

양계농 살처분 출하 줄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대형 마트에서 계란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산란닭의 살처분과 내림 양계농가 출하 제한으로 계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양계농협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AI 발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19일 136원(특란 1구, 서울 경기지역 기준)이던 계란 도매가는 지난 6일 148원, 지난 13일에는 158원으로 상승하며 1주일 단위로 평균 7%(10원)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계란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통상 4500만 수로 추정되는 산란계가 이번 AI의 영향으로 300만 수 이상이 살처분되면서 전체 산란계의 6~8%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AI 발생지에서 반경 3㎞ 이내에 있는 농장의 경우 이동 제한 조치에 걸리면서 최근 계란 출하량은 10~12%가량 줄어든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줄었는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AI 발생 시점인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평균 계란 구매 객수가 발생 이전 2개월간보다 10%가량 줄었다.

이런 가운데 계란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의 경우 병아리 입식 이후 20주가량 지나야 계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처분된 산란계 수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AI가 소멸되고 계란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가격 상승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평일기자 ymis@

서울시장 표심은 어디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박원순(앞줄 셋째) 서울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정몽준(왼쪽) 새누리당 의원, 이혜훈(왼쪽 다섯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회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투자 쉽게 산지 규제 푼다

활성화 겨냥 공장·휴양시설 짓게 허용

보전을 강조한 기존 산지관리법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는 산지에 공장·휴양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난개발을 우려해 '성타력 이용'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보전 산지는 전체 산지의 77%로 설정하는 등 보전을 중시했지만 최근 농산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잠재력만 우거진 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 역시 복잡한 규제로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기재부는 개발(준보전 산지)과 보전(보전 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 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 입지로 설정됐다.

즉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투자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동시에 기존의 산지 구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연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북, 동해상 로켓 25발 발사

사거리 70km '프로그' 추정

북한이 16일 오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이번 로켓 발사는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300mm 신형 발사포 발사 이후 12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로켓들은 동해안 지역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면서 "발사체의 사거리는 7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6시20분부터 10분간 10발이 발사됐고, 8시3분부터 5분간 8발의 발사가 이뤄졌다. 추가로 9시28분부터 4분간 7발이 발사됐다. 로켓 발사 장소는 북한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에도 로켓 낙하지점 부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은 발사체의 사거리로 미뤄 '프로그(Frog)' 지대지 로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로켓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체 동계훈련의 하나로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제 지대지 로켓인 프로그를 도입했고, 이 로켓은 관성유도 방식으로 비행한다.

합참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준기자 mjkim@

새정치는 약속의 실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130석 제2당 발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6일 야권 통합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했다. 신당의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 정했고, 당의 상징 색깔을 '바다파랑(sea blue)'으로 결정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발기인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발기인으로는 민주당에서 324명, 새정치연합에서 355명 등 모두 679명이 참여했고, 무소속 박주선·강동원 의원도 발기인으로 합류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수는 130석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어르신·청소년에 '사랑티켓' 지원

서울시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공연과 전시의 관람을 지원하는 '사랑티켓' 예매를 10일부터 재개했다.

올해는 대학로 주변 공부랑 공연시설을 토대로 연간 10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사랑티켓사업에 참여한다.

티켓 예매는 사랑티켓 회원 가입 후 가능하며, 관람 이용 횟수는 개인 회원은 연 10매까지, 단체 회원(10명 이상)은 연 1회로 제한된다.

사랑티켓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격을 1인당 7000원씩(전시회는 5000원) 할인 제공한다.

사랑티켓 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뉴스 & 뉴스

김황식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

●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6일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서울 시민께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 김근태 의원 재심재판 열기로

● 고문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고 김근태 의원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우려

6·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의원들이 직접 선거에 뛰어드는가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선거 준비를 위해 지역구로 달려가야 할 형편이어서 여의도의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6명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보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경선전에 뛰어든 상태다.

같은 당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울산시장에 출마했고,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일찌감치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을 훑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김영록 의원이 전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다.

직접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과 지역의 공천관리위에서 직책을 맡은 경우도 허다하다.

경선을 통한 후보 선정이 대략 4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볼 때, 국회가 열리더라도 이들은 공천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채인준기자 in.kim@

지자체일자리 우수상 받아

서울시 강남구는 12일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고용 지원에 노력한 결과 2만 700여 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 시행

서울시 동대문구는 16일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순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수교사가 보육교사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보육지도를 해주고 미술·음악·언어 등 치료를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서울시 중랑구가 다음달 15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민 3인 이상의 공동 명의 또는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사동 일대 고층건물 허용 논란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추진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 업체는 인사동에 고층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 문화지구 변경안은 인사동길 20-3, 20-5, 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가로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관훈·낙원동 일대 12만2300㎡는 2002년부터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으로 묶여왔고 업종도 제한됐다. 특히 인사동길과 태화관길의 주가로변은 고미술품점 등 전통문화업종만 입점할 수 있었다.

문화지구변경안대로 '주가로변'에서 제외되면 업종제한이 풀려 그동안 금지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호텔 예상 부지로 알려진 곳은 인사동 커피빈매장 건너편 인사동길 12-20, 22 일대다. 6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약 19층 높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 거리인 인사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지구 인사동에 고층 호텔 건설을 허용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서울시가 문화지구 규제를 축소하려는 계획은 인사동의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는 범위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호텔 건설을 염두에 두고 업종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인사동에는 이미 강남의 부동산 개발업체 C사가 일부 건물주와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최민준기자 mjen@metroseoul.co.kr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협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4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왼쪽) 전무와 강남성심병원 이용 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기준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의 입원·수술비, 외래치료비 및 검사비, 희귀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AI 수도권 확산 막아라 지난 9일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검출된 H5N8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이후 검강사업본부 직원들이 16일 철새 도래지인 서울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전력 교수 강단 못선다

교육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다혜기자 ydh@

글로벌제약사 툭하면 판권 회수

<1면에서 계속>

◆상생의 탈을 쓴 갑을 관계

제약업계의 '갑을' 관계는 도매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신약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사 제품의 영업과 판매를 주 수입원으로 해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여기서 글로벌 제약사가 '갑'이 되고, 국내사가 '을'이 되는 관계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공급과 유통으로 갑을 관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국내 제약사가 판매 실적을 올리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품을 회수해가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국내 영업망이 확보되고 제품이 국내에서 대형 품목으로 성장하면 판권을 되찾아가는 경우다.

특히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한 한 글로벌 제약사는 국내 한 대형 제약사에 자사 제품을 독점 판매케 했는데 결국 이 글로벌 제약사는 제품의 판권을 모조리 회수해갔다. 물론 글로벌 제약사가 제품을 회수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 제품을 판매하다 일방적으로 회수 통보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은 비윤리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수입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특히 글로벌 기업의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서를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갑은 이익이 우선이라 이익을 찾아가면 되지만 을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갑과의 관계가 언제나 숨통을 죄어오는 상황이다. 상생해야 하는 관계지만 갑을 관계의 냉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지웅기자 heyu383@metroseoul.co.kr

대학건물 신축 인허가 쉽게

앞으로 서울 시내 총 56개 대학에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축 계획에 있어서 대학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별로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학교별 일괄 심의로 변경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캠퍼스 내 공간을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 관리 ▲상징 경관 ▲외부 활동 ▲녹지 보존 네 구역으로 나눠 개선안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높이 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신축 건물의 높이는 주거지, 구릉지 주변은 높이를 낮춰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하고 캠퍼스 중심부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캠퍼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자율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오늘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17일까지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치의학-예술 융합교육 협정

서울여대 미술대학이 지난 13일 본교 행정관 중회의실에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서울여대 현대미술과 인지미술연구센터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의생명지식공학연구실이 중심이 돼 치의학·의생명-예술 융합창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명상록'의 황제 사망

180년 3월 17일 로마제국의 제16대 황제이며 5현제의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어릴 적부터 스토아 철학에 심취했던 마르쿠스는 황제의 양자로 뽑혀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어려운 시기에 로마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 도나우 강 전쟁 진중에서 집필한 '명상록'은 덧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행하는 지켜의 법칙을 순리라 믿고 주어진 운명을 감수하여 죽음을 의연히 맞을 것을 기술하고 있다.

48년간 코 속에 총알 지녀 '화제'

metro HongKong

중국에서 48년간 코 속에 총알을 '간직'해온 여성이 화제다.

선양(瀋陽)에 사는 62세의 자오(趙)모씨는 10년 전 심각한 비염으로 고생했다. 최근 그의 비염 증세가 더 심해졌다. 두통에 임파선까지도 부어올랐고 사지에 힘이 없었다.

여러 차례 CT 촬영 등 검사를 한 결과 그의 코에서 대추씨 크기의 금속물질이 발견됐다. 이 물질은 놀랍게도 길이 2.5cm의 총알이었다. 의사는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코와 윗입술을 절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겁을 먹은 그는 수술을 안 하고 버텼다.

하지만 증세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부비강염에 인후염까지 겹쳤다. 각종 소염제에 의지하던 그는 결국 11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자오모씨는 이 총알은 1967년에 박혔을 것이라고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 14세이던 그는 길에서 머리 쪽으로 무언가 스쳐지나가 피가 났고, 간단하게 지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으니 총알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내 목숨을 빼앗지 않고 이렇게 다시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담당의사는 "총알이 체내로 들어간 후에 병정을 틀고 움직였다. 다행히 중요한 혈관이나 기관을 피해서 비강에 자리 잡게 됐다"면서 "그래서 환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오래되자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무인비행체로 마약 감옥 반입

metro Brazil

이젠 범죄에도 첨단화의 바람이 부는 것일까. 브라질에서 드론(무인 비행체)을 이용해 감옥 안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상파울루에서 91km 떨어진 상주제두스캄푸스에 위치한 한 수감시설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250g의 코카인을 싣고 있던 '미니 헬리콥터'는 감옥 안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감시탑에서 모든 배송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배달이 성공하자 수감자 한 무리가 물품을 찾으러 뛰어갔고 곧 교도관이 현장을 급습해 마약 전량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드론은 임무를 완료한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모든 면회 일정이 연기됐으며 경찰과 교도소 측은 드론을 조종하던 일당의 신원을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16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 심페로폴의 투표소에서 한 노인이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AP 연합뉴스

운명가를 크림공화국 주민투표

투표율 80% 웃돌듯… 결과 인정 변수로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에서 16일(현지시간) 크림의 러시아 귀속 여부를 결정할 주민 투표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 크림공화국 내 1205개 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전체 주민이 약 200만 명인 크림공화국에선 18세 이상의 성인 약 15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

비가 내렸지만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주민들은 러시아 국기를 닮은 청색·백색·적색 등 3색의 크림공화국기와 꽃다발 등을 들고 투표소로 향했다.

투표장 부근에는 크림 정부 산하 경찰과 보안요원들 이외에 자경단원 약 1만 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투표소와 주요 관청 건물의 활동 보안을 책임졌다.

투표 용지에는 '크림이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찬성하는가'와 '1992년 크림공화국 헌법 복원과 크림의 우크라이나 일부로서의 잔류를 지지하는가'란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유권자는 둘 중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다.

크림 의회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듬해인 1992년 우크라에서 독립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독립을 불허해 자치권을 부여받는 선에서 타협했다. 따라서 두 번째 항목은 독립을 선포한 당시 헌법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다.

크림 정부는 투표율이 8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지 여론조사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이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서방 국가들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정 여부를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이번 투표를 위헌으로 규정했으며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자국 내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한 상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들어선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美 초과근무수당 반드시 지급

오바마, 행정명령 통해 추진

"미국인들은 초과 근무한 만큼 반드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라디오연설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상자는 주급 455달러(연봉 2만3660달러) 미만의 근로자들이지만 이를 주급 553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운 좋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중산층이 튼튼해야 경제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 제도가 악용되면서 최저임금보다 봉급을 덜 받는 근로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초과 근무수당 인상 검토는 편의점 등지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선미기자

기업 채용 시즌 '겁나 빠른 공채'앱 눈길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이 공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취업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공채 정보 일람은 기본이고 유료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 방식으로 취업 의지를 높여주기도 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겁나 빠른 공채' 앱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겁나 빠른 공채' 앱은 입사 지원 기업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부터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등 전형별 일정을 실시간으로 알람 서비스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관심 있는 기업을 '찜'해서 원하는 공채 정보만 모아 볼 수도 있고 원하는 기업의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기업 소개, 채용 정보, 인사제도, 공채 전형별 일정 등 다양한 공채 관련 정보도 수록돼 있다. /이국명기자 kyslee@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19.90 (-14.48)	541.27 (-3.24)
금리	환율
2.83 (-0.04)	1070.50 (+2.50)

금리 동결만 40번 '소극적 4년'

Issue&View
한국은행 어떻게 변화할까

김중수 총재 재임 4년간 적극적 경기대응 없어
미·일·유럽·이타 신흥국 중앙은행 행보와 대조

/김민기자 kmin@metroseoul.co.kr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임기 중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0개월 연속 2.5%로 동결했다.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깜짝쇼'는 없었던 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재 재임 4년(2010년 4월~2014년 3월·48개월) 중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40회, 인상 5회, 인하 3회 등 결정을 내렸다. 결국 김총재는 여덟 번의 '이변'을 연출하는 데 그친 셈이다.

이로써 그는 역대 한은 총재 중 박승 전 총재와 함께 동결 결정을 가장 많이 내린 총재로 남게 됐다.

이처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40회나 시행하는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어떤 통화 정책을 펼쳤을까.

우선 미국은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9월에 각각 2·3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2011년 9월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채를 사들이고 단기채를 팔아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 조작 방식이다. 이 같은 통화정책을 통해 10%대의 실업률이 지난 2월 기준 6.7% 선까지 떨어졌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4월 아베 정권이 '2년 안에 물가 2% 상승' 목표를 내세움에 따라 본원 통화를 2년 안에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양적·질적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48개월 동안 총 5차례 기준금리를 내려 연 0.25%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호주 역시 48개월간 11차례 기준금리를 조절해 4.75%에서 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자주 조절해 경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브라질은 25차례, 인도는 19차례, 대만은 5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조정했다.

더욱이 세계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경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준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 경제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제 현상은 연준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적극적인 경기 대응 조력자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통화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 속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새로 취임하는 한은 총재에게 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고객 최우선 해야 KT의 미래도 있다"

황창규(사진) 회장이 KT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KT는 지난 15일 분당 사옥 대강당에서 황 회장과 상무보 이상 임원, 주요 보직 팀장 등 270여 명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1등 KT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KT는 홈페이지 해킹 피해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밖에 지난 13일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맞았으며 최근 자회사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입찰 로비 혐의로 인한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등 악재가 겹쳤다.

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개발, 상품, 유통,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KT의 미래는 없다"면서 "고객 최우선 경영만이 KT가 글로벌 1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설득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빌 게이츠를 감동시켜 사업을 확장시킨 개인 경험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홈플러스 15주년… "BMW 미니 쏩니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9일까지 모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게 총 5억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시가 3500만원 상당의 BMW 미니 클럽맨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홈플러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첨 경품인 'BMW 미니 클럽맨'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금융권 '윈도XP 보안 셧다운' 주의보

MS 다음달 8일 지원 종료…ATM 등 위험 노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운영체제(OS) 지원 종료가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지원이 끝나면 PC 보안, 버그 수정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XP 기반의 컴퓨터나 ATM에서 대형 금융거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16일 한국M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개인 기업의 윈도XP 평균 사용률은 15.46%다. 일반 개인 PC뿐 아니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CD·ATM 등 자동화기기, 점포에서 계산·상품 관리에 쓰이는 매장관리시스템(POS) 등도 상당수가 윈도XP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MS 측은 "지원 서비스 종료로 보안과 개인정보 도난과 관련된 위험성이 커진다. PC가 중요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받지 못하면 유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에 취약해져 데이터나 정보를 도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시만텍·안랩 등 보안업체들이 윈도XP에 대한 백신을 앞으로 수년간 제공할 예정이지만 이들 업체의 백신이 윈도XP에 대한 보안 위협을 완벽히 방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cel@

뉴스&뉴스

애플-삼성 싸움, 구글 가세

● 애플과 삼성의 미국 2차 특허소송이 애플과 구글의 싸움으로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리는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 소속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발자가 이번 소송에 사실상 제3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애플과 맞서고 삼성전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모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애플은 구글의 레퍼런스(기준)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도 애플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지목했다.

/박상훈기자

SKT 'T가족 혜택 이벤트'

● SK텔레콤이 가족 고객 대상 'T가족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가족 고객 2~5인이 휴대전화를 결합할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콘텐츠·멤버십 관련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 가족 혜택 이벤트'를 17일부터 5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SK텔레콤 가족 고객 대상 혜택 프로그램인 'T 가족 혜택'에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결합한 전 가족 B tv 모바일 팩(월 9000원) 3개월 무료(15만 명) ▲가족 중 1명만 무제한 음원 듣기 서비스 '멜론 익스트리밍'(월 7000원)에 가입하면 나머지 가족 무료(3만 명) ▲가족 중 멤버십 VIP 골드 회원이 있으면 추가 1명도 동일 등급으로 상향(3만 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천우희기자

로또복권 제59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6	28	33	36	39	2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136,817,11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357,122
3등	5개 숫자 일치	1,511,118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81
공동대표 남궁호
사장 겸 발행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9-2100
독자센터 02)721-9800
2002년 5월 31일 창간 서울특별시 가00098

수원 SK 스카이 뷰 'K팝스타3' 숙소로

건설사들이 촬영 장소 간접광고(PPL)를 활용한 분양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 정자동 '수원 SK 스카이 뷰'(사진)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SBS 'K팝스타 시즌3'(이하 'K팝스타')의 숙소로 사용 중이다. SK건설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K팝스타' 생방송 기간 동안 'K팝스타' 출연자와 스태프 숙소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29㎡ 3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 SK 스카이 뷰는 인근 검수대로,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4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K팝스타' 출연자들이 연습실이나 의상, 헤어 등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연예 기획 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

또한 'K팝스타' 숙소로 사용 중인 해당 상품은 SK건설의 플러스알파 공간이 처음 도입된 단지로 유명하다. 이 평면은 대표적인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 확장 면적은 세대 외부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달리 알파 공간이 세대 내부에 제공됨으로써 전용면적 자체를 넓게 쓰는 효과가 있다. /박선옥기자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레이크사이드 3500억 인수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삼성에버랜드와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레이크사이드CC(54홀 규모)를 운영 중인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지분 100%를 3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매각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지분 비율은 8대2다.

레이크사이드CC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57억원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우량 골프장이다.

삼성물산은 '명문 골프장'인 레이크사이드CC 인수를 통해 앞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레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확보해 해외 레저시설 프로젝트 공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에버랜드 역시 이번 인수로 삼성에버랜드 역시 레이크사이드CC와 인접한 용인 에버랜드와 글렌로스GC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박선옥기자

<3년 경과 50억 미만>

변액보험 '자투리 펀드' 골머리

재권거래·분산투자 힘들고 단위비용 높은데 정리 묘수 없어

생명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 중 소액, 즉 자투리펀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와 금융 당국이 법조항 마련을 잠정 보류,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액펀드는 설정 후 3년이 지나고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으로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체 변액보험펀드 799개 중 174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펀드는 규모가 작아 자유로운 채권 거래가 힘들고 효율적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 비용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소액펀드 정리 가이드라인'을 각 생보사에 전달해 유사 펀드가 있는 소액펀드를 우선 이전하고 유사 펀드가 없는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지 사유 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펀드 정리 작업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까지 174개의 소액펀드 중 정리된 것은 20여 개에 불과하다.

소액펀드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업계의 적극성도 떨어지지만 금융 당국이 펀드 적립금 이전 기준을 찾지 못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을 잠정 보류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50억원 미만인 소액펀드를 정리할 때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한 뒤, 비슷한 펀드를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입자가 유사한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 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거의 같은 펀드로 적립금을 이전하고 유사 펀드가 없을 경우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일반 펀드와 달리 정리 대상과 유사한 펀드를 찾아내기 어렵다.

유사한 펀드가 없을 때는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펀드와 일반 펀드가 다른데 같은 정리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금융 당국과 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sjs@metroseoul.co.kr

스마트에어컨 옆 빙상여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 선수가 지난 15일 삼성 스마트에어컨 팬 페스타 행사가 진행된 삼성 디지털프라자 본점 서현점에서 팬사인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올 증시 최대 상승 업종 '비금속광물'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7일 2013년 말 이후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업종별 지수 등락을 조사한 결과, 비금속 광물·의료 정밀 등 11개 업종지수가 상승하고 철강 금속, 통신업 등 7개 업종지수는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비금속 광물로 31.01% 상승했다.

이어 의료 정밀(16.18%), 의약품(7.44%), 건설업(5.13%), 종이 목재(3.72%)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내린 업종은 철강 금속으로 10.68% 빠졌다.

다음으로 통신업(-8.56%), 금융업(-7.30%), 화학(-6.66%), 운수장비(-5.55%) 등이 뒤따랐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3.83% 하락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금융거 시람들 ■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

'월세 세금' 겁먹기 전 잠깐!

주택만한 수익상품은 없어 전세 전환·매도 서둘기 전 준공공 임대 등 대안 찾길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혼란을 넘어 공포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택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 주보다 절반이 빠진 0.0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연한 공포심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규정(사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며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전세로 돌리는 등의 악선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의 임대소득 과세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좇는 정부의 모습에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세제화를 앞두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2016년까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그 사이 본인에게 유리한 임대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월세의 경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을 내더라도 전세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며 "또 월세 전략은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공포심으로 무조건 전세로 바꾸기보다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택 외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 주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이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3주택자,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2주택자, 고가 1주택자 등만 조금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들 과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준공공 임대 사업이 꼽힌다. 10년 임대의무기간과 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지만 임대소득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 임대 사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1억~2억원대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사실 주택(오피스텔)밖에 없다"며 "막연한 공포심으로 주택 임대를 피할 필요는 없으며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명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k9270@

<이관희 이사장>

'동양 안주인' 1600억 포기

네트웍스 회생안 법원 인가…'오너 보루' 의혹 불식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로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숨통이 트였다. 오너 일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동양네트웍스가 완전한 채권단의 품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너 일가의 버티기가 마무리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청령-계엄 협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의 주식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4일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 담보권자의 89%, 회생 채권자의 87.2%가 이 계획안에 찬성했다.

동양 사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주 매출처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채무자인 동양네트웍스는 회생 담보권자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를 분할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회생 채권자의 경우 6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소액 상거래 채권자도 채권의 6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특히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부인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에 증여한 오리온 주식 15만9000주(1600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이사장은 오리온 주식을 활용해 그룹 내 자산인 골프장과 연수원을 사들이자 일각에서는 동양네트웍스를 오너 일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고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의혹은 불식됐다.

계획안은 또 징벌적 차원에서 오너 일가의 동양네트웍스 주식의 감자 비율을 강화해 채권단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에는 5대1 감자가 적용되며 일반 주주는 2대1 감자가 실시된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올레 인터넷·TV 가입혜택 풍성 KT는 신학기를 맞아 올레 인터넷 과 올레 TV 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료와 스마트 셋톱박스를 무료 지원하고 42인치 3D TV를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T 제공

카드3사 유출정보 이미 유통

8000만여건 2차 피해 우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4000만 건 가운데 8000만여 건이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에 확인됨에 따라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3개월간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개인정보 8270만여 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중개업자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NH농협카드 고객 2430만 명, KB국민카드 고객 5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나머지 대출중개업자들도 조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엔 비밀번호와 CVC번호가 없어 카드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중에 유출된 정보도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돼 있어 수사 당국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박미선기자 sllvia0209

생체인식 '몸'값 천차만별

지문보안 20~30만원대 얼굴·홍채 인지 제품 최소 100만원대 중반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의 보안이 가장 안전할까 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조나 사기 등의 가능성에서 생체 정보 보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생체 정보 보안은 우리 몸의 일부를 비밀번호나 카드와 같은 열쇠로 사용하는 것으로 얼굴, 지문, 홍채가 대표적인 인식 수단이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생체인식 기술 관련 출원 자료를 봐도 보안의 대세는 몸 임을 알 수 있다.

2011년 216건, 2012년 271건, 2013년 394건으로 출원량이 증가 추세며 얼굴인식, 지문인식, 홍채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7%, 31.7%, 8.6% 순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점은 얼굴, 지문, 홍채 인식에 가격과 편의성, 정확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인식 수단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된 지문은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20만~30만원대의 가격에 출입문은 물론 개인용 금고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등록된 지문이 많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손가락에 물이 묻었을 경우 인식 오류가 나타나기 일쑤다. 여러 사람이 손을 댄다는 점에서 위생적으로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얼굴인식과 홍채인식은 정확도가 높다. 최신 제품은 밤에도 인식이 가능할 정도다.

얼굴인식의 경우 안경이나 모자를 써도 주인을 알아보고 쌍둥이조차도 분별하는 수준까지 왔다.

홍채는 우리 몸에서 측정 가능한 식별 특징이 약 266개로 가장 많다. 지문은 40여 개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단말기 가까이 눈을 들이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안경을 썼을 때 인식률이 떨어진다.

얼굴인식, 홍채인식 모두 최소 100만원대 중반의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다.

얼굴인식 보안업체 파이브지티의 정규택 대표는 "우리 몸은 분실, 복제의 우려가 없다. 가까운 미래에 공인인증서에도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훈기자 park@metroseoul.co.kr

SK브로드밴드 B박스 체험행사 홈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를 융합한 B박스를 출시한 SK브로드밴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고화질 TV 영상통화와 홈 모니터링 등 B박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세상 B박스'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곽 드러나는 방통위 3기

위원장에 최성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하면서 3기 방통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업무를 관시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 또 다른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임명된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는 최 내정자를 비롯해 상임위원에 새누리당 추천의 허원제 전 국회의원, 민주당 추천의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결정됐고,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만을 남겨뒀다. 현재 마지막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대희 전 상임위원의 유임이 거론되고 있다.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2기 상임위원들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끝으로 25일을 기해 공식 임기가 마무리된다.

당초 이경재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데다 그동안 방통위를 별다른 잡음 없이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으며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 무산 이후 통신 시장 대응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물러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새롭게 방통위를 이끌게 된 최 내정자는 "얼마 전 휴대전화를 3년 반 만에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아쉽더라"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통 사업정지 첫 날 3970명 'SKT로'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영업정지) 첫날 SK텔레콤으로 3970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13일 LG유플러스 고객 1703명이 SKT로 옮겨갔다. KT의 경우 고객 2121명이 SKT로 빠져나갔다. 신규 가입자 76명을 포함해 SKT는 총 3970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해와 달리 두 개 통신사씩 들어가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KT와 LG U+가 먼저 영업정지를 시작하면서 단독으로 정상 영업하는 SKT가 반사효과를 얻었다. /정문호기자 unique@

문정 엠스테이트 상업시설 'M7' 분양중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2블록 '엠스테이트(MSTATE)' 상업시설 엠세븐(M7)이 분양 중이다.

엠스테이트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오피스·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전체 연면적이 삼성동 코엑스(11만9000㎡)보다 넓은 15만8193㎡에 달한다.

그중 M7은 연면적 3만6449㎡, 점포 수 총 230여 개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지상 1층 기준으로 3.3㎡당 2900만원대이며, 송파 일대 상업시설 분양가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시행사는 한국자산신탁, 위탁사는 ㈜엠에스뉴브가 선정됐고, 국내 시공능력 평가 1위의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8호선 문정역 직통으로 연결

M7은 문정지구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다. 택지지구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 등의 가격 차를 보이기 마련인데, 엠스테이트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정지구 좌측으로 위치한 KTX수서역도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이라 M7 준공 시기에는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요일 불문 일주일 내내 활성화

총 230여 개의 점포로 소성되는 상업시설 M7은 월요일(Monday)부터 일요일(Sunday)까지 일주일 내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중에는 문정지구 및 단지 내 오피스를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의 탄탄한 상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주말에는 문정 로데오거리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대규모 올림픽훼밀리아파트(4494가구)도 배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유럽형 디자인을 도입, 유러피안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지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9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이다. 문의 번호 02)3432-5714 /박상욱기자

삼성 1만4300만원 vs LG 200원…배당금 71배차

양사 슈퍼 주총데이 개최

이익분배금 격차 갈수록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주주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각각 1만 4300원, 200원을 기록했다. 양사 간 차이는 무려 71.5배 이상으로, 한때 삼성전자와 국내 전자업계 라이벌로 자리매김했던 LG전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양사는 '슈퍼 주총데이'로 불린 지난 14일 오전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보통주 주당 배당금을 1만4300원, 우선주 1만4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0% 대폭 상향된 것이다. 반면 LG전자의 주주배당금은 1주당 보통주는 200원, 우선주는 250원으로 확정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배당금 차이는 지난 2001년 각각 주당 3000원, 1000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난 상황에서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의 국내 도입으로 국내 휴대전화 사업이 휘청거리던 2010년에도 삼성전자는 보통주 7500원·우선주 75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반면, LG전자는 보통주 1750원의 현금 배당에 그쳤다.

이후 LG전자는 2012년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으로 하락한 이후 지난해와 올해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LG전자가 수백억원대의 현금 배당을 결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LG전자는 대규모 손실 공시를 냈다. 지난 2011년 매출 28조971억원, 영업손실 2892억원, 당기순손실 2779억원을 기록한 것.

또 LG전자는 지난 2011년 연말 운영 자금과 시설 투자금 위해 938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단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2009년 5000원, 2010년 7500원, 2012년 5000원, 2013년 75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2012년의 경우 LG전자와 달리 전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애플 아이폰 도입에 대한 대비로 유보금을 올리기 위해 배당을 줄였을 뿐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주주배당금이 보통주당 각각 1만4300원, 200원을 기록했다. 양사 주주총회 관련 모습과 그래픽을 합성했다.

양사 간 이런 차이는 주주배당금 이외에 등기이사 보수 한도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총에서 올해 등기이사 9명에게 지급하는 총 보수 한도액을 작년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실제 집행한 등기임원 보수는 일반보수 280억원과 장기성과보수 59억원 등 총 339억원이다. 이 중 사외이사 보수 총액이 매년 3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윤부근 CE부문 사장, 신종균 IM부문 사장,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 등 등기임원(사내이사) 4명의 이사들에게 들어간 보수 총액은 335억원, 즉 1인당 평균 84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윤부근 CE부문 사장, 신종균 IM부문 사장,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 등 등기임원(사내이사) 4명의 평균 연봉도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29조원, 영업이익 37조원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낸 것이 이유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도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달성해 주주 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또 "등기이사 보수 한도가 증가한 것은 장기 성과급이 지난해보다 그만큼 더 늘었기 때문인데, 2011~2013년까지 3년간 성과를 2014~2016년에 걸쳐 50%, 25%, 25%씩 나눠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LG전자는 이날 이사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45억원으로 결정했다. LG전자의 이사 수는 7명이다. LG전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가로 인해 이번 주총에서 잡음이 예상됐지만, 20여 분 만에 문제 없이 끝이 났다.

/송하문기자 ksa1@metroseoul.co.kr

기업들 사회공헌활동의 진화

방법	기업 사회공헌 활동 사례
협업(Collaboration)	SM엔터테인먼트: 삼성과 S-CUBE 추진,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및 슈퍼주니어 콘서트 초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 'YG WITH'
핵심역량 활용 業 연계형	SPC: 장애인 및 청소년 대상 제과제빵 직업 교육 실시 제네시스비비큐: 치킨 등 외식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하나투어: 저소득층 여행 지원 '희망여행 프로젝트' 추진 형지·동부대우전자·코웨이 등 형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워킹맘 리턴즈' 등 스킨푸드: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 '원포원(One For One)' 캠페인 운영
프로보노(ProBono)형	스타벅스: 취약계층 대상 바리스타 교육 실시, 취업 지원 회계법인(삼일·안진·한영·삼정): 비영리단체 회계자문 및 멘토링 실시

"결혼하고 가족들과 친정에 온 것은 처음인데, 친정 가족들과 함께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보다니 꿈만 같아요. 게다가 중국말 통역으로 참여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됐어요." 박춘화(45·여·S-CUBE 참여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신규 회원사들이 기업 사회공헌활동에도 새로운 개성을 더하고 있다. 전경련이 신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종(異種) 기업 간 협업,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신규 회원사들의 새로운 면면만큼 엔터테인먼트, 회계 서비스 제공, 바리스타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가 개척되고 활동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은 업종이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삼성과 공동으로 'S큐브(S-CUBE)'라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첫 사업으로 중국 출신 다문화 가족 12명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SM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슈퍼주니어 콘서트에 이들을 통역시로 채용하고 이들의 가족들을 콘서트에 초청했다. 방문 비용은 삼성에 개최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SM은 그간 진행해온 소속 연예인들의 사회공헌활동들이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팬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YG 위드(WITH)'를 추진한다. 소속 연예인들이 심장병 환자 후원, 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앨범·콘서트 수익금 등을 기부하거나 자선콘서트 등에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팬들은 소액 기부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업 연계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SPC는 제빵왕을 꿈꾸는 장애인 청소년들의 꿈을 돕는다. 'SPC & 소울(Soul) 행복한 베이커리 교실'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제과·제빵 직업 교육과 취업을 돕고, 'SPC 내일은 파티시에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비비큐는 창업을 지원한다. 외식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좋은 식당 만들기 프로젝트'와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치킨대학'을 통해 기존·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과 식당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하나투어는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 저소득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들에게 여행을 지원한다. '하나투어의 희망여행 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48개 단체, 총 3350명에게 여행을 선물했다.

패션그룹 형지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형지는 30~50대 경력단절 주부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인 '워킹맘 리턴즈'와 저소득 여성 가장의 자녀 교육비 후원을 위한 WOW(Wings Of Women)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무료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삼정·한영 회계법인도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들에 자문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경제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제 자신의 특성과 역량을 살리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스스로 발굴,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탁기자 &-mail:유

젊어진 외관…힘찬 핸들링

말랑한의 차차차

• 토요타 아발론

중대형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 차급은 오너드라이버의 시각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가 중요하다. 콤패그십 모델과 달리 쇼퍼 드리븐(뒷좌석 승객)보다는 직접 차를 모는 고객들이 훨씬 많은 까닭이다.

토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종 중 최상위 모델인 아발론도 여기에 해당하는 차다. 미국에서는 현대 그랜저, 폭스바겐 파사트, 닛산 맥시마 등과 경쟁하고,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10월에 처음 선보였다.

4세대 모델인 이 차는 3세대보다 젊은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미국에서 3세대 모델 고객의 평균 연령은 68~70세였는데, 토요타에서 타깃 고객 연령층을 끌어내리려 한 결과 날렵한 지금의 스타일이 완성됐다. 그랜저와 비교하면 차체가 50mm 길고, 25mm 좁고, 10mm 낮다.

실내는 쾌적하고 세련되게 마감됐다. 특히 센터페시아 설계가 눈에 띈다. 정전식 버튼은 이음매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돼 조작감이 좋고 이물질이 낄 염려도 없다. 포드나 캐딜락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발론의 조작감이 더 낫다.

V6 3.5ℓ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77마력과 최대 토크 35.5kg·m를 발휘한다. 그랜저 3.3(294마력)에 비해 출력이 낮지만 실제 가속감각은 비슷하거나 더 낫다. 그랜저 3.3의 최대 토크가 아발론과 같은 35.5kg·m인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47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덕분이다(그랜저 3.3은 5200rpm). 활용 빈도가 더 높은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면 엔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한 줄 평가: 운전의 즐거움이 뛰어나다. 뛰어난 마무리도 돋보인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물렁하던 3세대 모델서 탄탄·날렵하게 진화
넉넉한 공간·세심한 마무리 중대형 오너에 딱!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노멀·스포트 등 3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 승차감은 그랜저보다 살짝 단단하지만 딱딱하지는 않다. 푹신한 승차감을 선호한다면 그랜저가 낫겠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아발론이 더 안정감 있다. 좌우로 굽이지는 와인딩 로드에서도 아발론의 핸들링은 돋보인다. 오래전 미국차처럼 물렁하던 3세대 모델과는 전혀 다른 셈이다.

아발론의 표시연비는 도심 8.5km/ℓ, 고속도로 12.2km/ℓ로, 도심에서는 그랜저보다 낮고 고속도로에서는 엇비슷하다. 그러나 차이가 미미해 실제 연비는 거의 차이가 없다. 가격은 아발론이 4890만원이고, 그랜저 3.3에 내비게이션과 파노라마 선루프를 더한 가격은 4248만원으로 642만원이 차이 난다.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토요타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활용한다면 실제 구입 가격 차이는 줄어든다.

유려한 감각의 핸들링과 넉넉한 공간, 세심한 마무리가 잘 조화된 아발론은 중대형차 오너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춘 매력적인 차다.

/말랑한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국산·수입차 2월판매량 TOP5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전월판매량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포터2	7,486	1,000	1,180	1,360	1,570
기아	모닝	7,165		860	830	980
현대	아반떼	6,479	1,220	1,250	1,370	1,520
현대	쏘나타	6,102	1,810	1,910	2,320	2,960
현대	그랜저	5,918		2,350	2,650	2,860
벤츠	E-CLASS	1,515	3,630	4,070	4,880	4,880
BMW	5 Series	1,282	3,650	4,030	4,560	5,090
아우디	A6	878	-	4,010	4,550	5,150
BMW	3 Series	722	2,840	3,020	3,880	4,190
폭스바겐	Golf	647	2,050	2,330	2,540	2,64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말리부, 디젤 중형시장 진격

경쟁차 대비 훨씬 저렴

한국GM이 쉐보레 말리부 디젤을 출시하면서 국내 디젤 중형차 시장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말리부 디젤 시승회를 열면서 제품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말리부 디젤의 경쟁 상대는 주로 수입차다. 국산차로는 현대 i40밖에 없지만, 수입차 중에는 폭스바겐 파사트, 푸조 508, 볼보 S60 등 경쟁상대가 많다.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폭을 넓힐 경우 아우디 A4, BMW 3시리즈, 벤츠 C클래스, 인피니티 Q50 등 더욱 다양한 모델과 맞붙는다.

말리부 디젤은 최고 출력 156마력에 최대 토크 35.8kg·m의 성능을 낸다. 반면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는 140마력/32.6kg·m이고, 푸조 508 2.0은 163마력/34.6kg·m, 볼보 S60 2.0 디젤은 163마력/40.8kg·m를 나타낸다. 말리부 디젤은 경쟁차 중 최고 출력이 세 번째지만 최대 토크는 두 번째로 높다. 배기량이 한 단계 낮은 현대 i40 1.7 디젤은 140마력/33.0kg·m다.

말리부 디젤의 가격은 2703만~2920만원(최고급 모델 풀옵션은 3368만원)으로 수입 디젤차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현대 i40 디젤은 2615만원이고, 풀옵션을 갖추면 3300만원이다. 파사트 2.0 TDI는 4140만원이고 푸조 508 2.0은 4750만원, 볼보 S60 2.0 디젤은 4520만원으로 모두 말리부 디젤보다 비싸다.

그러나 수입 디젤차들은 성능과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도 갖추고 있다. 볼보 S60 D2는 115마력 1.6 디젤 엔진을 얹었고 가격을 4180만원으로 낮췄다. 푸조 508 역시 112마력 1.6 디젤 엔진을 얹은 모델이 3960만~419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볼보 S60 D2는 17.2km/ℓ, 푸조 508 1.6은 18.4km/ℓ의 뛰어난 복합연비가 강점이다. 파사트는 14.6km/ℓ, S60 2.0은 14.0km/ℓ, 508 2.0은 14.8km/ℓ로 앞서 언급한 모델보다 떨어진다. 특히 말리부 디젤은 13.3km/ℓ로 경쟁차 중 연비가 가장 뒤처진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연비보다 파워 보강에 무게를 실었다"는 입장이다. 현대 i40 디젤 연비는 15.1km/ℓ다.

중형차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던 한국GM이 말리부 디젤 출시를 계기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말랑한기자

빅2 전자업체 배당 놓고 온도차

뉴스룸에서
김 태 균
<경제산업부장>

신경영 삼성그룹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일반인들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들어봤음직한 이 단어가 새롭게 다가온다.

이를 필두로 삼성의 개혁이 시작됐고, 20여 년이 지난 현재 삼성의 위상을 보면 경영자의 장기적인 안목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기업 경영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통한다. 중국의 고사에 '견리사의(見利思義)'가 있는 이유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그것을 취하는 게 옳은지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때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양분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주총회를 보며 느끼는 소회는 남다르다.

두 회사는 모두 '슈퍼 주총데이'로 불린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표면적으로 두 회사 모두 큰 이슈가 없었다.

그러나 내면에 담긴 온도 차는 상당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와 여전히 휴대전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LG전자의 차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주 배당이라는 지표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이날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주재한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보통주 1주당 지난해보다 84% 늘어난 1만43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29조원, 영업이익 37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한 구본준 부회장을 대신해 정도현 최고재무책임(CFO) 사장이 발표한 LG전자의 현금 배당은 주당 200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1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배당금이 각각 3000원과 1000원으로, 3배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차이는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20여 년간 LG전자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특히 문제는 미래다. IBM PC사업부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레노버처럼 중국의 경쟁업체 중에 삼성처럼 장기적인 비전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경영자(CEO)로 꼽힌 류촨즈 레노버 회장은 지난 2003년 강연에서 "처음은 언제나 비전이다. 그것에 나와 조직을 이끌 것이다"며 장기적인 안목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앞뒤로 끼어버린 형국인 '위기의 LG'에 구본무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제 국정원은 반드시 거듭나야한다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역대 정권 가운데 국정원의 위상이 지금처럼 흔들린 적은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정원장 사퇴나 관련자 문책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지난해 4월에 대선 관련 댓글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05년 불법도청 의혹으로 받은 압수수색을 합치면 세 번째가 된다.

국정원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분단국가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 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지만 때로는 정권의 시녀 노릇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던 국정원이 민주화의 시발이 된 1987년 6·29 선언 이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종잡을 수 없는 혼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본래 설립 취지나 기능과 거리가 먼 활동이 수시로 노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자의 취향(?)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기능이 변질돼 본래의 사명을 벗어난 일이 적지 않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거진 대선 댓글 사건만 해도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국정원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공안정보기관(일명 모사드)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그리고 일본의 내각정보조사국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국익 위주의 엄정 중립기관이 돼야 마땅하다. 어떤 정권 교체에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기능 면에서는 국익 위주로 해외 활동에 한층 강화되고 안보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산업정보 수집과 유출 방지 역할이 획기적으로 커져야 한다.

여기에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답게 철저한 정보 관리와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제393차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통이 통제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교차로에 차량들이 통제돼 멈춰 있다. 평소 이동 차량이 많은 삼성역 주변이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지자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멈춰 볼다는 듯이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진영기자 son@

20년 쌓은 명성 5분에 "우르르"

기자수첩
장 윤 희
<경제산업부 기자>

KT 광화문 사옥에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는 격언이 곳곳에 붙어있다.

최근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직후부터는 각종 복도마다 "정보가 새면 개인도, 회사도 무너집니다" "정보 유출의 결과는 나와 회사의 파멸입니다"라는 살벌한 분위기의 포스터가 추가로 등장했다.

요즘 통신 3사를 보면 공든 탑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실감한다.

평소 캠페인처럼 주창하던 격언에 따르면 KT는 고객정보 유출로 '20년 쌓은 명성을 5분 만에 무너뜨린 형국'이다. KT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고객정보 유출만이 아니다.

자회사 KT ENS의 부장이 협력업체와 짜고 벌인 3000억원대 대출사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45일간의 영업정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입찰 로비 혐의로 인한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등 악재가 겹쳤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양사는 각각 7일과 14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고 대리점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도 벌어졌다. 인기 스타 이정재와 전지현, 지드래곤을 광고모델로 삼아 이미지 쇄신을 꾀했지만 엎지른 물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래의 위기는 실적 경쟁과 느슨한 보안이 곪아 터진 결과다. 번호이동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고객정보 관리에 통신 3사의 공조도 필요하다. 통신 3사의 LTE-A급 신뢰 회복책을 기대한다.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인문학 산책
김 만 용
<성균관대 교수>

"페르제 선생의 강아지는 하늘의 푸르름을 쳐다본 적이 없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작가 이나똘 프랑스가 남긴 말이다. 물론 강아지들을 비하하기 위한 주장은 아니다. 모든 것을 경제의 가치로만 환산하는 세상에 대한 한마디였다.

한국 인문 교육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 도정일의 산문집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이 얼마 전 나왔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느 새 '여름 저녁의 노을', '눈 내린 숲의 아름다움'보다는 "돈 되는 일"에만 꽂혀 사는 데에 대한 일깨움으로 가득 차 있다. 페르제 선생의 강아지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한 토막이다.

"정신을 잠은 상자에 가두는 교육"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왜 시간이 걸리고 과일은 왜 천천히 익고 이것은 왜 겨울 눈 더미와 지층 사이에서 서서히 싹 틔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해, 도정일은 시인 정현종의 표현을 빌려 "짐승스러운 편리의 노예"라고 부른다.

그는 책 읽기 운동을 펼친다. '책을 읽지 않는 머리에서 무엇이 과연 나오겠는가'라는 게다. 오래전 시인 김수영도 "신문만 읽는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는가?"라고 탄식한 바 있다.

여기서 방점은 '신문'이 아니라 '신문만'이다. 단명하기 짝이 없는 정보와 들뜬 여론의 행태기들, 뭐지 알지 않으면 뒤처질 세상의 대세로 인식하게 만들고 생각의 작동을 점지 마비시키는 대중매체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다. 대중매체는 민주주의의 힘인데 오늘날 상황은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성서에는 한 올빼탁자에 대한 예수의 비유가 나온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란 잘 훈련된 올빼탁자와 같다면서, 그는 자신의 곳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가려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누구의 눈에나 새것과 낡은 것이 어느 것인지 자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무슨 훈련을 하고 있을까? 혹시 페르제의 강아지를 기르는 일에 온통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작 쓸모 있는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내팽개쳐놓고, 진즉에 버려야 좋은 것을 고귀하다고 추앙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을까? '쓰잘데없어 고귀한 것들의 목록'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교육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이다.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 "수술 필요 없어요"

초기 및 중기 질환은 도수 운동 치료 도움
말기 증상일 땐 10분정도 고주파로 '가뿐'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자주 받아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 이에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 교정하는 곳 등을 찾아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이후 B씨는 엉덩이 통증과 다리 땅김이 심해져 유명한 척추병원들을 찾아 여러 차례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받았으나 가격만 비싸고 효과는 일시적이라 결국 수술을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인, 스포츠 스타들이 찾는 곳으로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상욱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B씨는 요추 신경치료 주사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 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맞춤형 치료에 이은 도수·감압·운동치료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척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주사 요법, 침 치료 등만을 받다 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병원인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정확한 진단을 시행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선행한 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최근에 '메디신'에 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술 감압술과는 다른 방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시술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뼈를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이며 감압치료는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다. 또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 및 홍대입구역에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정희준기자

봄바람 부는 날, 눈물이 주룩주룩

유해물질 많고 건조 안과 질환 주의해야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봄이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황사와 꽃가루·미세먼지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들 때문에 외출이 즐겁지만은 않다. 특히 이런 유해물질과 건조한 봄바람은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조심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질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눈이 가렵고 빨갛게 충혈되는 것이 특징이며 눈의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따라서 황사와 꽃가루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하며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해야 한다. 게다가 이물질이 콘택트렌즈에 흡착되면 눈에 염증을 일으켜 각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안구건조증을 조심해야 한다.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인구건조증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 안구건조증은 방치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건조증의 예방을 위해선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 체내 수분량을 높여야 한다. 또 인공눈물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눈물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질환을 만성화시킬 수 있다.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다 눈에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넘어지거나 부딪쳤을 때 눈꺼풀이 붓고 멍이 들거나 출혈 등의 외상이 생기면 안구 손상과 함께 안와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안와골절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며 코 쪽과 눈 아래쪽 뼈에 흔히 발생한다. 특히 안와골절은 시신경 손상이나 시력 감소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송상률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교수는 "봄철은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가장 많은 때다. 눈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대병원 '콩팥의 날' 행사 열어

대한신장학회가 지난 13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콩팥도 당신과 함께 나이가 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건강강좌는 대한신장학회가 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콩팥병이란 무엇인가?(백기수 경기노의료 원장) ▲당뇨병 및 고혈압과 만성 콩팥병(조영일 건국의대 신장내과 교수) ▲만성 콩팥병의 치료(박태진 이산 신내과 원장) ▲노인의 만성 콩팥병(강덕희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 대한신장학회는 이 자리에서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8대 생활수칙'을 준비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은 콩팥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을 세계 콩팥의 날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재용기자

자생한방병원 '척추교실'

자생한방병원의 정기 건강강좌 '생생척추관절교실'이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압구정 강남 자생한방병원 내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우리의 무릎관절이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이날 강연에서는 자생한방병원 이갑수 한의사가 무릎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체크하고 생활 속 스트레칭 방법과 관절질환 예방 음식을 소개한다. /정혜인기자 hjung0414@

"버블넘버원, 한국인의 축하와인 되길"

쉬르다르크 수출디렉터 로랑 밍고의 스파클링 와인 이야기

세계 최초의 스파클링 와인인 버블넘버원으로 유명한 쉬르다르크의 수출을 담당하는 디렉터인 로랑 밍고(Laurent Minguand·사진)가 한국을 찾았다.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이라는 그는 매 방문마다 항상 새로운 인상을 받으면서도 한국 문화가 버블넘버원을 생산하는 프랑스 리무(Limoux) 지역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에서 버블넘버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블넘버원은 돔 페리뇽이 샴페뉴 지방에서 샴페인을 처음 양조하기 100년 전인 1531년 리무에 위치한 생 일레르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우연하게 버블이 생긴 와인을 만든 것에서 시작됐다. 로랑 밍고는 버블넘버원에 대해 "모두 함께 즐기는 축하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와인"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전문 양조학자이기도 한 그는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세 조건으로 ▲기후 ▲산지 조건 ▲발효 공정을 꼽았다. 리무 지역은 피레네산맥 근처로 고도가 높아 기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포도가 천천히 여물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좋다. 또 샴파뉴지방 석회암 생산지이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에 어울리는 포도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버블넘버원은 뉘힌 병 안에서 찌꺼기와 함께 15~24개월간 2차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러운 기포와 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산된 버블넘버원은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핑크라벨·프리미엄·로제 3종이 판매 중이다. 로랑 밍고는 핑크라벨에 대해 말린 과일의 향과 토스티한 여운을 주는 와인이므로 식전 애피타이저나 식후 디저트로 즐기길 권했다. 프리미엄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크리미한 느낌을 주고 로제는 베리류의 진한 아로마와 섬세한 기포를 느낄 수 있다. 식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과 로제는 남성도 좋아할 만한 술이라고 한다.

로랑 밍고는 한국을 자주 찾는 만큼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와인 시장은 레드 와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스파클링 와인 비율이 작지만 앞으로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버블넘버원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해주는 술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국내 판매 중인 버블넘버원 핑크·프리미엄·로제 3종 제품(위). 쉬르다르크의 수출 디렉터 로랑 밍고가 버블넘버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승민 셰프 "짱구와 요리해요"

'엄청 맛있어' 개봉 앞두고 이색 홍보행사 열어 화제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대원미디어 수입·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의 개봉을 앞두고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 1 우승자인 김승민(사진) 셰프가 짱구와 함께 요리를 선보인다.

4월 3일 개봉 예정인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에서 짱구는 별 다섯 개짜리 요리들만 선호하며 서민들의 음식축제인 'B급 음식 대축제'를 위협하고 맛집들을 모두 없애려 하는 'A급 요리기구'에 맞서 전설의 소스와 소스가 담긴 감사장의 볶음 국수를 지키기 위한 특급 작전을 펼친다.

김승민 요리사는 일본 유학 당시 짱구 애니메이션을 보며 일본어를 공부한 추억과 초등학생인 자녀들의 추천으로 이번 제의에 흔쾌히 응했다는 후문이다. 김승민 요리사는 'A급 요리기구'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짱구의 유일한 무기인 볶음 국수와 레시피뿐 아니라 함께 다른 2가지 요리와 레시피도 직접 짱구와 공개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겨울 달군 선글라스 매출 중국발 미세먼지로 여름철이 성수기인 선글라스의 매출이 급증했다. 1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간 선글라스 매출은 겨울 시즌 사상 최대 매출 비중은 물론 신장률에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눈 건강'을 겨냥한 투명렌즈의 구매율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서산투어 기차여행 손짓

코레일관광개발이 서산시와 함께 지난 14일 여행업계와 코레일 여행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는 서산시티투어 기차여행 상품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됐으며 팸투어 참가단은 서산동부시장과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왕벚나무로 유명한 개심사, 해미읍성 등을 방문했다.

서산시티투어 기차여행은 매주 화·토·일요일에 운행된다. /홍지민 기자

'김치 치즈 퀘사디아' 세계 입맛 유혹

애슐리 퓨전 한식 신메뉴

한류 드라마 열풍에 이은 K-팝·한국 예능 프로그램 등의 활약이 세계적으로 뜨겁다. 그 뒤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K-푸드'로 불리는 한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효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주가 되는 '건강'이 전세계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한국 음식은 바로 김치.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리어나도 디카프리오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뉴욕에서 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 관심이 뜨겁다.

김치를 담그는 풍습은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까지 올라 저력을 뽐내고 있다. 김치는 발효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건강식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에 익숙한 서양인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에서는 서양인들의 스타일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영상까지 공개한 바 있다.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덜 넣은 김치 레시피가 나타나기도 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에 발 맞춰 좀 더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한 퓨전 김치 음식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식업체 애슐리에서는 최근 김치 치즈 퀘사디아(사진)를 출시해 외국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퀘사디아는 멕시코 요리 중 하나로 치즈와 불고기 등을 밀가루로 만든 토르티야에 넣고 반으로 접어 굽는 요리다. 서양에서 익숙한 토르티야와 모차렐라치즈에 매콤한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아 넣어 오븐에 구워낸 김치 치즈 퀘사디아로 거부감 없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애슐리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최근 애슐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외국인 고객들이 다양한 세계의 음식들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챙겨주는 한식 메뉴들로 한국의 문화도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2014
조관우
콘서트
꽃밭에서
LOTTE
HOTEL WORLD
2014/03/21 FRI PM8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 예매 INTERPARK 티켓 문의 1544-1813

"금니 삽니다" 불황 속 편의점 풍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금니 매입' 안내판.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편의점에서도 금 매입을 벌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명명일기자

신발 유행도 돌고 도네

구두·운동화 복고 바람 예전 인기 모델 재출시

신발 업계에 레트로 바람이 거세다.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복고풍의 의상과 신발이 자주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신발 업체들은 스테디셀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단종됐던 모델을 재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크록스는 지난해 출시됐던 비치 라인 보트 슈즈를 2014년형 버전으로 재출시했다. 이 신발은 크록스가 출시한 남성 제품들 중 최초로 국내 판매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다. 남성 제품의 경우 캐주얼 비즈니스룩에 매치하기 좋도록 캔버스 느낌을 살린 슬림한 형태로 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젊은 여성들에게 따뜻한 포인트로 인기를 끌었던 여성 라인과 키즈 라인은 기존 컬러와 더불어 다양한 색상을 추가로 선보였다.

특히 지비츠로 아이들이 직접 꾸밀 수 있는 제품도 출시돼 가족을 위한 패밀리룩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스케쳐스의 리브는 걸음걸이에 따라 신체의 무게중심을 변화시켜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가능해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여성들에게 주목받던 제품이다.

10~20대를 겨냥해 옐로·에메랄드 블루 등 경쾌한 파스텔톤의 컬러를 추가해 재출시됐고 아동용 리브 키즈도 함께 선보였다.

마니아층을 공략하기 위해 단종된 제품을 재출시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아디다스는 미국의 테니스 영웅인 스탠 스미스의 이름을 딴 운동화 스탠스미스의 시그니처 화이트 X의 그린 컬러 제품 100족을 지난 1월 15일 한정 판매했다. 스탠스미스는 전 세계적으로 4000만 개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테니스 코트가 아닌 일상에서 스타일 연출을 돕는 아이템으로 유명해졌다.

리복은 펌프 퓨리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인스타 펌프 퓨리 오리지널 6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 94년 출시 당시 신발끈을 없애고 펌프를 통해 착용하는 인스타펌프 기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성아 크록스 마케팅팀 이사는 "스테디셀러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슈즈 업계에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은 최소 1~2년 정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p0104@metroseoul.co.kr

조막만한 얼굴, 화장하기 나름

리프팅 파운데이션 후에 하이라이터로 입체감 '업'

얼굴에 입체감을 더한 탄력 있고 볼륨감 있는 스몰 페이스 메이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몰 페이스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작고 입체적인 얼굴을 만드는 메이크업이다. 작은 얼굴을 만드는 방법으로 리프팅 효과가 있는 마사지,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의 시술을 떠올리기 쉬지만 시술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메이크업으로 작은 얼굴을 연출할 수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원장은 "탄탄하고 탱탱한 피부 표현에 리프팅 효과를 더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만 잘 사용하더라도 스몰 페이스 연출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제품 사용과 함께 윤곽은 살리고 볼륨은 더하는 테크닉을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우선 보습력·커버력·밀착성 등은 기본으로 갖추되 리프팅 효과가 더해진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윤곽을 타이트하게 잡아준다. 최근 얼굴에 탄력감과 볼륨감을 주는 리프팅 파운데이션이나 필러 성분을 더한 파운데이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그다음 하이라이터와 셰딩 제품을 이용해 다시 한번 얼굴선을 살리고 사이즈를 줄인다. 이마·콧등·턱 눈 밑 등 볼륨감을 줘야 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터를, 헤어라인·턱선 등 얼굴 윤곽 부분에는 피부색보다 어두운 컬러의 셰딩 제품을 자연스럽게 터치해 전체적인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면 작아 보이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

/정해은기자 hjune0404@

오리온스 홈경기 관람객에 '에너지바' 무료 증정

오리온은 17일 고양 오리온스와 서울 SK 나이츠와의 경기가 열리는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오리온스와 함께하는 에너지바 데이" 행사를 열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닥터유 에너지바와 99라이트바를 무료로 증정하며 경기 중에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와 응원 타임, 오리온스 선수단 팬미팅 등을 펼쳤다.

닥터유 에너지바는 2009년 출시 이후 국내 기능성 바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제품이다. 특히 다양한 견과류와 과일 등이 들어간 제품으로 에너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 L-카르니틴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함유해 운동 전후에 먹으면 좋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박봄

산다라박

씨엘

공민지

'공연 체질'인 그녀들 연애엔 '젬병'

'크러시'로 무서운 인기몰이 2NE1

2NE1은 올해 시작부터 전세계 불어닥친 아이돌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 2009년 데뷔 후 거침없이 성장하면서도 새 앨범에 대한 갈증을 풀지 못했던 이들은 4년 만에 새 정규앨범 '크러시'를 발표하고 또 한 번 무서운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음악 전문지들의 호평이 줄을 이었고,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K-팝 가수 최고 순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2NE1이 바라보는 곳은 세계 무대다.

> 4년만에 정규앨범 발표
> 완전히 새로운 10곡 채워
> 1집 같은 느낌이랍니다
> :
> 일기쓰듯 3곡 작사·작곡
> 리더 씨엘의 음악성 빛나
> 사랑 서툴러 주위서 걱정

◆소녀시대 여성 특유 진심으로 응원

새 앨범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멤버들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첫 정규앨범에는 이전에 발표한 싱글들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새로운 10곡을 채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규 1집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곡을 녹음하며 긴 시간 준비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갈증이 풀린 기분이에요."

이들의 컴백은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와의 정면 대결로 끊임없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가요계 양대 기획사인 SM과 YG엔터테인먼트의 자존심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이들의 대결 소감은 조금 달랐다.

"선배님들이고 여자 그룹이 그렇게 오래 사랑받는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우린 이제 큰 선 하나를 넘은 기분인데, 선배님들은 그런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여성 파워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같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네 멤버의 뚜렷한 개성은 2NE1이 내세우는 최고의 무기다. 특히 이번 앨범에서 빛난 건 리더인 씨엘의 음악성이다. 3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했고, 작사만 한 곡도 2곡이 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집에서 일기 쓰듯 했는데 (양현석) 사장님이 큰 힘을 주셨죠. 재미로 시작한 작업을 꼼꼼하게 모니터해주셨고, 게다가 자작곡인 '크러시'를 앨범명으로도 써주셨어요."

한 명의 멤버가 부각됐지만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

"제가 만든 곡으로 디렉션 없이 처음 우리끼리 녹음하면서 네 명이 굉장히 끈끈해졌어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죠."(씨엘)

"씨엘은 같은 멤버지만 멋있어요. 다른 멤버들 역시 각 곡마다 발휘하는 장점들이 달라요. 우리 넷이 퍼즐처럼 맞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산다라박)

◆개성 뚜렷… 올 목표 서울 앙코르 콘서트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소녀시대와 경쟁하고 비교되지만 본업을 떠난 사랑에 있어서는 많이 서투르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연애는 많이 뒤처지는 걸 인정해요. 언니들은 회사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오빠들이 많다는 게 문제고요. 너무 친하다 보니 저를 보수적으로 대하기도 하죠."(씨엘)

"사장님이나 회사 선배님, 박봄 친구들이 더 걱정해줘요.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빨리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산다라박)

이번 앨범 발표와 동시에 두 번째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AON)'에 돌입했고, 신곡을 전면에 내세운 새 공연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을 일만 남았다.

"해외에 2NE1 같은 그룹은 없다고 자신해요. 우리와 같이 멤버들의 개성이 분명하고 취향이 다르고, 각자 다르게 생긴 것까지 모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다른 그룹들과 달리 방송 출연이나 개별 활동이 적지만 콘서트만큼은 제대로 즐기는 것도 우리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투어 공연을 마치는 7월쯤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박은지

'포커페이스' 조재현 통하다

'정도전' 동시간대 주말극 시청률 1위… 정통사극 자존심 지켜

KBS1 '정도전'이 연일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정통 사극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15일 방송은 15.5%(TNmS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같은 시간대 방송된 MBC '황금 무지개'(15.0%),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12.5%)를 따돌렸다.

역사 속 정도전은 정치 체계를 새로 만든 인물로, 이 드라마는 정치의 문제가 인물이 아닌 시스템이라는 점을 꼬집고자 한 제작진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다.

반면 심리전 토론을 반복하는 이야기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MBC '기황후'에 비해 50~60대에 편중된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정도전'이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굳직한 카리스마를 내세운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이 시청률 일등 공신으로 분석된다.

조재현(정도전·왼쪽 사진)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광기 어린 모습과 지략에 융통성까지 갖춘 능구렁이의 모습을 오가며 포커페이스의 달인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동근(이성계)은 극중 완벽한 활검도 사무라를 선보이 인기미와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강인 힘을 보여주며 활검도 토호 세력인 이성계 역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박영규(이인임·오른쪽)는 무명에 가까운 이인임 역을 주인공급으로 끌어올리며 코믹부터 악역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시청자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단순히 역사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에 여운을 제공하는 점도 시청률을 견인한다.

조재현은 지난 10일 '정도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 600년 전 과거와 유사하다. 세경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품에 투영되는 것 같다"고 인기 비결을 말했다.

정덕현 드라마 평론가도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극은 현실에 울림을 줘야 하는데 이 측면에서 '정도전'은 정통 사극 자체의 재미를 준다"며 "정도전 이인임 최영 등 다양한 국가관을 지닌 인물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 중장년층이 큰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인기를 분석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섹시 벗고 코믹 입은 포미닛

그룹 포미닛(사진)이 새 앨범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미닛은 타이틀곡 '오늘 뭐해' 티저 영상에서 이미를 들켜이는 독특한 댄스와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영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티저 영상은 이제껏 선보인 포미닛의 도발적이고 섹시한 카리스마의 이미지와는 달리 독특하고 코믹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특히 중독성 강한 '오늘 뭐해' 의 후렴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화장실을 배경으로 남녀가 함께 선보이는 아찔한 댄스가 눈길을 끈다.

시스루와 스포티한 스타일을 매치한 전지윤은 화장실에 누워서 오묘한 표정과 함께 어깨춤을 선보며 웃음을 자아내고, 막내 권소현은 깜찍한 표정으로 귀여운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다. 남지현은 한 쪽을 올린 채로 도도한 포즈를 취했으나 뒤로 보이는 화장실 배경과 대조되며 반전의 재미를 만들어냈다.

허가윤은 빛나는 아이브로로 포인트를 주면서 물오른 미모를 과시했고, 현아는 코믹한 춤을 추면서도 새빨간 상의와 원색 셔츠를 매치해 강렬한 인상을 줬다.

포미닛은 17일 타이틀곡 '오늘 뭐해'를 비롯한 미니 5집의 음원을 공개한다.

/유순호기자 yuus@

라이브 황제 vs 발라드 황제

이승환 정규 11집 발표 · 신승훈 5년만에 극장식 공연 5월 개최

1990년대 음악계를 호령한 두 전설의 가수들이 조님 메이드급 행보를 펼친다.

이승환은 요즘 음악계에 좀처럼 보기 드문 2CD 형태로 제작한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를 발표한다. 전편이라 이름 붙인 첫 번째 앨범은 3월 출시하고 후편 앨범은 하반기 아주 본격적인 믹싱 및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후편의 녹음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모두 끝냈다.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지난 4년간 총 40여 곡을 작업해 그중 20여 곡이 이번 앨범에 추려졌다"며 "2장으로 구성된 11집은 뮤지션 이승환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블록버스터 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유명 스튜디오에서 녹음 및 마스터링을 진행하는 등 사운드 완성도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앨범 발매를 기념해 28~29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이승환옹 특별 회고전+11'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이승환

신승훈

신승훈은 5월 6~11일 LG아트센터에서 5회에 걸쳐 극장식 공연을 개최한다. '더 신승훈쇼 리미티드 에디션 II'라는 이름의 이번 공연은 200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소규모 극장식 공연이다.

어쿠스틱 공연으로 관객과의 교감을 극대화한 공연으로 14일 예매 시작과 함께 실시간 예매차트 1위에 올랐다. VIP와 SR석이 1시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5회분 5000장의 좌석이 모두 팔려나갔다.

/유순호기자 suns@

준케이 솔로앨범 세계적 아티스트 대거 참여

2PM의 준케이(사진)가 일본에서 발표하는 솔로 데뷔 앨범에 정상급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5월 14일 출시되는 앨범 '러브 & 헤이트'의 수록곡 '리얼 러브'에는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이 참여했고, '노 뮤직 노 라이프'에는 일본 R&B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가수 AI가 피처링을 맡아 준케이와 빼어난 하모니를 이뤘다. 일본 힙합계 스타 시이펀은 '트루 스웨그 파트2'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준케이가 전곡 작사·작곡·프로듀싱을 맡은 이번 앨범은 최근 현지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해 타워레코드 예약차트 1~3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준케이는 5월 8~9일 오사카를 시작으로 13일 후쿠오카, 16일 도쿄, 19~20일 나고야, 22일 삿포로, 27~28일 도쿄 등 5개 도시에서 9회에 걸쳐 솔로 투어를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개그맨 장가가는 날

황영진·김정훈 웨딩마치

개그맨 황영진(사진)과 김정훈의 결혼식이 16일 나란히 열린 가운데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KBS2 '개그콘서트'의 동료 개그맨들이 식장에 총출동해 앞날을 축하했다.

황영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르 브리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0세 연하의 바리스타 김다솜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개그맨 김기욱과 엄세현이 사회를, 김선영이 축사를 맡았다. 황영진이 현재 출연 중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동료들도 참석하거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김정훈도 이날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 7년간의 열애 끝에 일반인 여자친구와 화촉을 밝혔다.

사회는 개그맨 동기인 서태훈이 맡았으며, 축가는 김성원 김준현과 26기 KBS 공채 개그맨들이 불렀다. 이 자리에는 '개그콘서트'에서 사랑받고 있는 오나미도 참석했다.

/박현민기자

대한민국 노처녀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tvN 다큐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3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 3월 27일 첫방송

'로맨스가 더 필요해' 22일 첫방송된다

tvN이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뒤어넘는 토크쇼 '로맨스가 더 필요해'(이하 '로더필', 사진)를 선보인다.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로더필'에선 전현무와 박지윤의 진행 아래 김지윤 좋은연애연구소장, 배우 라미란·이창훈, 가수 레이디 제인·홍진영, 개그맨 조세호, 프로게이머 홍진호, 연애컨설턴트 송창민 등 총 10명의 MC들이 '로맨틱 마스터'로 변신해 연애 상담에 나선다.

'로더필'의 첫 번째 코너 '연애 잇수다'는 사전 접수된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코너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사연을 두고 MC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더필'의 핵심 코너인 '썸톡'은 연인 단계 직전의 남녀가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를 분석해 긴장감 넘치는 연애 심리를 알아 본다.

문태주 PD는 "'로더필'은 신개념 연애 고민 해결소가 될 것"이라며 "MC들의 빵빵한 입담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니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김지민 기자

'밀회' 김희애·유아인 20세차 파격 멜로

'밀회'의 김희애-유아인 /JTBC 제공

'마녀의 연애' 엄정화·박서준 14세차 로맨스

'마녀의 연애'의 엄정화-박서준 /CJ E&M 제공

안방, 연상녀·연하남 커플 바람

안방극장에 불어닥친 연상녀 연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과거 연상녀 연하남이 등장했던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의 나이 차가 적게는 세 살에서 크게는 열 살까지 차이 났다면 최근 방영을 앞둔 '마녀의 연애'와 '밀회' 등에 등장하는 연인들의 나이 차는 열네 살부터 스무 살까지로 누나를 넘어선 이모뻘의 연상녀들이 연하남들과의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희애와 유아인의 만남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은 JTBC 새 월화극 '밀회'(17일 첫 방송)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흔 살의 커리어우먼 오혜원(김희애)과 스무 살 연하의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유아인)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멜로 드라마다.

김희애와 유아인의 실제 나이 차는 연아홉 살로 극중 캐릭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아인은 지난 12일 르엘아트홀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여자가 연상이면 욕을 먹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연상녀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유아인은 "남자가 열아홉 살 연상이면 '능력자네' 혹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서, 여자가 열아홉 살 연하랑 만난다고 하면 욕을 먹더라. 우리 사회가 그렇다. 심지어 '더럽다'는 악플도 봤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엄정화가 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선택해 화제를 모은 tvN '마녀의 연애'(다음달 14일 첫 방송) 역시 연상녀와 연하남의 이야기다. 엄정화와 상대역 박서준의 실제 나이 차 역시 열아홉 살이지만 극중에서 두 사람은 열네 살 나이 차로 등장한다.

엄정화는 결혼 실패 후 싱글을 택한 서른아홉 살 반지연 역을 맡았으며 최근 '마녀사냥'으로 떠오른 박서준이 스물다섯 살 윤동하 역을 맡아 상큼 발랄한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이동건 6년만에 가수 컴백

배우 이동건(사진)이 6년 만에 가수로 컴백한다.

이동건은 15일 일본 부도칸에서 열린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합동 공연인 'FNC 킹덤 인 재팬-판타스틱 데이'에 출연해 '슬픔은 안녕'과 '오 아이 러브 유'를 라이브로 열창했다.

'슬픔이여 안녕'은 일본 유명 밴드 안전지대의 곡을 한국어로 번안해 리메이크한 곡으로 2008년 발표한 이동건의 일본 첫 앨범에 실린 노래다. 두 번째로 부른 '오 아이 러브 유'는 2주 전 녹음을 마친 신곡으로 이번 공연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동건은 "이 노래로 올해 연어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서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과 '낭랑 18세' 등으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동건은 2006년 앨범을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el@

'렛 잇 고 여신' 은가은 댄스가수 데뷔

'레이트 블루머' 발표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 잇 고' 커버곡을 불러 화제가 된 은가은(사진)이 댄스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그는 14일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레이트 블루머'를 냈다. 타이틀곡 '베이비 베이비'는 펑키한 리듬과 힙합적인 그루브가 조화된 댄스곡이다.

지난해 디지털 싱글 '드롭 잇'으로 데뷔했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은가은은 최근 온라인에 올린 '렛 잇 고' 커버 영상에서 뛰어난 미모와 가창력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고, 15일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에도 출연해 또 한 번 주목받았다.

소속사 디엠씨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에 "사실 '스타킹'에 출연한 후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방송 일자가 늦어져 이제 얼굴을 알리게 됐다"면서 "사람들의 관심에 감사하며 현재 무대에 설 스케줄을 잡고 있으니 곧 음악 무대에서 정식으로 인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스물여덟 살의 은가은은 '스타킹'에서 "아직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하지 못한 9년째 연습생이다. '스타킹'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정말 고맙다"며 그간의 설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현정기자 sh0427@

이현우 中 팬미팅 1000명 몰려

깜짝 생일파티에 눈물도

배우 이현우(사진)의 매력이 중국에서도 통했다.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현우는 최근 중국 웨이보의 유명 연예인 검색 순위에서 섬룡을 제치고 5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현우는 지난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고 현지 팬 1000여 명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그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삽입곡 '청춘예찬'을 불러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얻었다. 또 중국 팬들이 이달 23일 이현우의 생일에 앞서 깜짝 생일 파티를 마련해 이현우는 감동에 벅차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현우는 "정시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해준 중국 팬들 덕분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노부스 콰르텟의 베토벤·슈베르트

2년만에 정기연주회 · 현악사중주 작품 깊이있게 조명

젊은 실력파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사진)이 2년 만에 정기 연주회를 연다.

이들은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9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제6회 정기 공연 '더 하이트 콰르텟'을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 12번과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 작품인 15번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들이 모여 결성된 노부스 콰르텟은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창단 멤버인 첼리스트 문웅휘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2009년 합류한 비올리스트 이승원으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현악사중주 부문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 현악사중주단이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한 건 이들이 처음으로, 국내 실내악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12년에는 실내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ARD 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및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3위와 청중상을 모두 수상해 세계 무대에서 인지를 다졌다.

올해부터는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짐멘아우어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곳에 이름을 올린 건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박성훈기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장면들 /충무아트홀 제공

괴물 대립 지루할 틈 없네

Musical review

■프랑켄슈타인

귀에 착 감기는 음악 창작뮤지컬 새 지평

국내 창작 뮤지컬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작품이 등장했다. 11일 충무아트홀에서 개막한 '프랑켄슈타인'은 극본, 연출부터 음악, 세트까지 해외 라이선스 대작 뮤지컬과 견줘도 손색없는 무대를 선보이며 기존 창작 뮤지컬의 한계를 넘었다.

영국 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원작인 이 작품은 언뜻 보면 라이선스 뮤지컬 같지만 원본 텍스트만 참고했을 뿐 기획부터 제작까지 100% 국내 창작진의 손으로 탄생된 토종 뮤지컬이다. 충무아트홀의 개관 10주년 기념작으로 그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무대에 올렸다.

시체를 이용해 괴물을 창조한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창조주인 빅터를 저주하며 복수극을 펼치는 괴물의 대립이 스릴있고 흥미롭게 펼쳐져 3시간의 긴 공연 시간에 지루하지 않다. 원작을 그대로 무대에 올리기보다는 새롭게 창작한 인물을 투입해 색다르게 가공했다.

'삼총사' '잭 더 리퍼' 등 다양한 유럽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연출자 왕용범이 그동안의 경험을 집대성해 '프랑켄슈타인'에 쏟아부었다.

괴물이 탄생하는 실험실, 빅터와 괴물이 쫓고 쫓기는 음산한 숲 등의 세트는 화려하고, 무대도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무엇보다 그동안 창작 뮤지컬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음악의 완성도가 탄탄하다. 귀에 꽂히는 한방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귀에 착 감겨 창작 뮤지컬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빅터 역과 괴물을 괴롭히는 격투장 주인 자크 역의 유준상, 류정한, 이건명, 빅터의 조력자 앙리 뒤프레 역과 괴물 역의 박은태, 한지상 등 전 배우들이 완전히 상반된 캐릭터를 1인 2역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박은태는 괴물의 몸짓과 목소리까지 섬세하게 연기하며 완벽한 캐릭터 표현력을 보여준다.

물론 첫 시즌에 오른 뮤지컬인 만큼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유럽 뮤지컬 같은 느낌이 강하다. 흥행 측면에서 안전을 꾀한 영리한 선택지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독창성이 부족하고, 특히 화려한 유럽식 의상과 파티 장면은 식상한 느낌을 준다.

극 중간중간 앙상블이 등장해 웃음을 주는 장면도 전체적인 줄거리와 큰 상관이 없는데도 짧지 않은 분량을 차지해 군더더기로 남는다.

그럼에도 '프랑켄슈타인'의 등장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욱이 창작극 초연은 성공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작품은 라이선스작에 뒤지지 않는 흥행 요소를 두루 갖춘 데다 최근 공연계가 이렇다 할 대작이 나오지 않는 시기라는 점에서 흥행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우아한 거짓말' 입소문의 힘!

박스오피스 1위 올라

김희애, 고아성 주연의 영화 '우아한 거짓말'(사진)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3일 개봉한 이 영화는 15일 16만7306명의 관객을 보았다. 같은 날 개봉한 이민기·김고은 주연의 '몬스터'(3위·11만8954명)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역전을 이룬 것은 물론 '300: 제국의 부활'(2위·13만1624명), '논스톱'(4위·10만 명)을 모두 제친 결과다. 누적 관객 수는 33만5099명이다.

김려령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우아한 거짓말'은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난 열네 살 소녀 천지(김향기)가 숨겨놓은 비밀을 찾아가는 엄마 현숙(김희애)과 언니 만지(고아성), 그리고 친구 화연(김유정)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급사는 "20~30대부터 40대 이상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관객 수가 가족 관객들의 관람이 증가하는 주말에 전날 대비 140%가 증가했다"면서 "소통과 가족애에 대한 메시지와 배우들의 열연이 입소문을 탄 결과로 보인다. 입소문은 이어가며 앞으로 흥행에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은희기자

송새벽, 최민식과 한지붕

배우 송새벽(사진)이 최민식·설경구·이정재 등 쟁쟁한 배우들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난 200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로 얼굴을 알린 송새벽은 이듬해 영화 '방자전'으로 신인남우상과 조연상을 휩쓸며 충무로의 샛별이 됐다. 이후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부당거래' '7광구' '아부의 왕'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개성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송새벽의 새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최민식, 설경구, 이정재,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 박성웅, 곽도원, 강혜정, 송지효, 정선아, 박유환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송새벽은 최근 배두나, 김새론과 함께 영화 '도희야' 촬영을 마쳤다. /김재민기자 lanok@

캐릭터 입체감 더한 '서편제' 재공연

창작 뮤지컬 '서편제'가 20일부터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재공연에 들어간다.

이 작품은 동명의 소설 원작을 토대로 어린 송화와 동호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 유봉과 갈등을 빚으며 이별과 만남을 겪는 과정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2011년 제5회 더뮤지컬어워즈 5관왕, 2012년 예그린 어워드 4관왕 등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재공연은 각 등장인물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갈등 관계를 보다 명료히 보여줌으로써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하고 관객의 공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 중 자신의 소리를 찾아 방황하는 동호의 삶과 감정 변화를 구체화한다. 동호의 이야기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 라이프 이즈…' 곡 등 두 가지 넘버를 새롭게 추가했다.

극본 조광화, 연출 이지나, 음악감독 김문정 등 국내 뮤지컬계를 이끌어가는 정상의 제작진이 의기투합했다. 또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윤일상이 작곡에 참여했다.

이자람, 차지연, 장은아, 마이클리, 송용진, 임병근, 지오, 서범석, 양준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70)7124-1740 /박은희기자

뮤지컬 '서편제' /쇼노트 제공

metro sports

10이닝 무실점 윤석민 "봤지, 눈도장投"

양키스 상대 ML데뷔전 "생각보다 잘돼" …임창용 세번째 등판만에 호투

빅 리그를 두드리는 코리안 듀오 윤석민(28·볼티모어 오리올스)과 임창용(38·작은사진)이 나란히 깔끔한 피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윤석민은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1-1 동점인 7회초 볼티모어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첫 타자 라몬 플로레스에게 좌중간 안타를 내줬지만 에이스 윌리엄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으며 메이저리그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이어 카일 롤러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고, 마지막 타자 시토 컬버는 2루 땅볼을 유도하며 빠르게 이닝을 끝냈다.

총 11개의 공 중 8개의 스트라이크를 잡는 공격적인 피칭을 한 윤석민은 패스트볼은 물론 전매특허인 칼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시험하며 안정되게 마운드를 이끌었다.

8회 대런 오데이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경기를 마쳤지만 7회 말 볼티모어는 1점을 추가해 윤석민은 1이닝만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윤석민은 이닝이 끝난 후 볼티모어 지역 중계팀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에서 비자를 받고 오느라 연습이 부족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된 것 같다"며 "일단 목표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지만 최종 목표는 선발투수로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동료들의 칭찬도 쏟아졌다. 더볼티모어선은 "윤석민이 던지는 내내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고 썼고, AP통신은 '윤석민, 데뷔전에서 빛나다'라는 제목과 함께 활약을 보도했다.

윤석민의 공을 받은 포수 케일럽 조셉은 "윤석민이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았고, 안타를 맞은 뒤에도 자기 공을 던졌다"고 칭찬했다. 벅 쇼월터 볼티모어 감독은 "첫 등판이고, 지난 두 달간 신상에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윤석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여러 시즌을 겪어온 만큼 그가 자신이 준비할 것이라 예상한 시점을 믿으면 된다"고 말했다.

시카고 컵스의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임창용은 이날 메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이닝을 무실점 퍼펙트로 막았다.

6회말 페드로 스트롭에 이어 네 번째 투수로 등판한 임창용은 첫 타자 저스틴 맥스웰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고, 제이슨 도널드와 브렛 아이브너를 연달아 3루수 땅볼로 돌려세웠다. 총 14개의 공을 던져 9개의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임창용은 7회 웨슬리 라이트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내려왔다. 컵스가 6-5로 승리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임창용은 이날 호투로 평균 자책점을 6.00으로 낮추며 메이저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윤석민이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의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역투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성민 19점… KT 1승 더하면 4강

농구 PO 3차전 전랜 꺾어

부산 KT가 구름 관중 앞에서 승리를 거두며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 고지를 눈앞에 뒀다.

KT는 16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인천 전자랜드와의 3차전에서 75-64로 승리했다. 1차전 승리에 이어 시리즈 2승을 먼저 챙긴 KT는 남은 4, 5차전 중 1승만 보태면 4강에 진출한다.

이날 경기에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합쳐 최다 관중인 9124명이 입장했다.

KT는 전반을 36-22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경기를 리드했다. 3쿼터 종료 5분39초를 남기고 KT 조성민의 3점슛이 터지면서 점수는 20점 차로 벌어졌다. KT는 줄곧 10점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승리를 지켜냈다.

KT 조성민은 19점, 후안 파틸로가 13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전자랜드는 찰스 로드가 18점으로 분전했다. 전창진 KT 감독은 이날 승리로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 40승을 달성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6일

KT	15	21	20	19	75
전자랜드	8	14	18	24	64
신한은행	16	15	23	14	72
KDB생명	21	15	21	21	78

16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3차전 부산 KT와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에서 KT 조성민(오른쪽)이 골밑슛을 성공시킨 김우람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시즌 4호 도움 …팀 승리 이끌어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사진)이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했다.

박지성은 16일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아른험에서 열린 2013~2014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7분 위르겐 로카디아의 골로 앞서가던 에인트호번은 전반 18분 동점골을 허용했다. 전반 29분 에인트호번의 멤피스 데파이가 찬 페널티킥이 골키퍼 손을 맞고 나오자 박지성이 달려들며 헤딩으로 살려냈고, 이를 다시 데파이가 헤딩 골로 연결시켰다. 박지성은 후반 34분 교체됐다. /유순호기자

박승희 500m 금 '소치 한풀이'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 박승희(22·화성시청)가 세계적인 빙상 강호들을 제치고 500m 정상에 올랐다.

박승희는 1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 결승에서 엘리스 크리스티(영국)와 판커신(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500m에서 동메달을 딴 데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이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열린 대회로 당시 활약한 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소치올림픽에서 크리스티는 500m 결승과 1500m 예선에서 실격을 당했고, 판커신은 1000m 결승에서 박승희의 옷을 잡아채려는 기상천외한 반칙을 저지르는 등 거친 경기 스타일을 보이는 선수라 이번 대결은 더욱 치열했다.

소치 대회 500m에서 두 차례나 넘어지며 투지의 동메달을 따낸 바 있는 박승희는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을 털어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5000m 계주 준결승에 이호석(28·고양시청), 이한빈(26·성남시청), 박세영(21·단국대), 신다운(21·서울시청)이 출전해 1위로 결승에 올랐다. 17일 러시아·영국·네덜란드와 대결한다.

한편 남자 500m에 출전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는 중국의 우다징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4위에 그쳤다. /유순호기자

16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 결승에서 우승한 박승희가 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전적 16일

울산	3	0	전남
수원	2	2	상주
전남	1	2	제주

프로배구 전적 16일

대한항공	3	1	러시앤캐시
도로공사	0	3	현대건설